

시바가키 신사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마쓰바라 6 개 신사 순례지 중의 하나. 신사의 전승에 의하면 6 세기 전반에 24 대 닌켄 천황의 칙명으로 창건되었다고 한다. 18 대 한제이 천황, 요사미노 스쿠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신다.

이 지역은 5 세기 전반, 한제이 천황이 황궁으로 이용한 다지히 시바가키노미야 궁터라고 전한다. 『고사기』에 의하면, 한제이 천황은 출생 시에 구슬처럼 어여쁜 이빨이 나 있었기 때문에 미즈하와케노미코토(端齒別命)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하 신사가 있어 매년 8월 8일 밤 8시 8분에 수많은 등롱으로 둘러싸여 치아의 신에게 바치는 제례가 거행되는데 이는 천황의 건치에서 유래하는 축제이다.

신사의 사무소가 자리한 장소에는 1868 년까지 신사에 부속된 히로바산 간넨지 절(진언종)이 있었다. 남문은 간넨지 절의 산문이다. 참배당 오른쪽에는 1652 년, 왼쪽에는 1671 년에 세워진 석등이 있다. 에도시대 전반, 이하라 사이카쿠는 이 신사에 참배한 후 ‘시바가키노미야 궁터에 핀 무궁화 옆에서 바라보는 숲나무 울타리 너머의 마을모습’이라는 시를 읊어 『가와치 가가미 명소기』(1679년)에 실려 있다.

1854 년 8 월에는 다치베무라의 신도 26 명이 봉납한 ‘36 인의 가선도(歌仙圖)’가 참배당에 걸려 있다.

집회당 앞에는 ‘天滿宮 享和元年九月’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손을 씻는 분주가 놓여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5 번째로 큰 전방후원분인 가와치 오쓰카야마 고분(니시오쓰카)의 석실에 사용된 석자재로 추정된다. 분구 위에 모셔진 스가와라 신사(1908년에 시바가키 신사에 합사)의 분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